

지역-대학 연계 사업 은.상.프로젝트

2019. 결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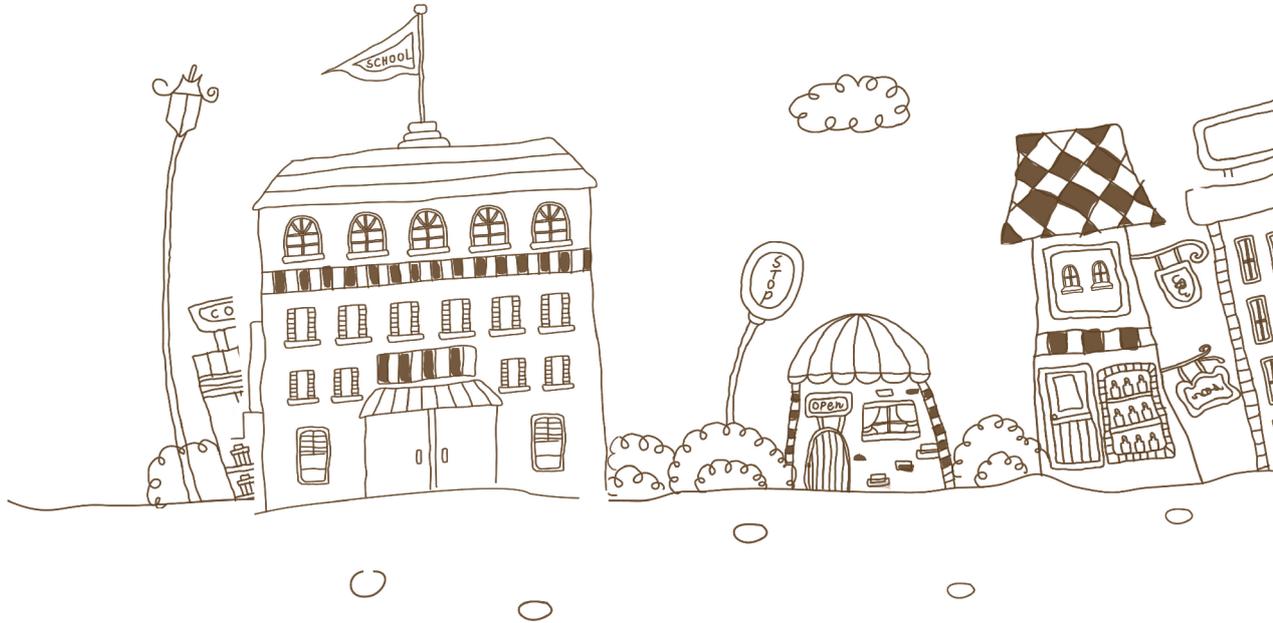


지역-대학 연계 사업
은.상. 프로젝트

CONTENTS

02	여는 글
06	자신만만 _ 은.상.(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다빈치실험실 _ 은.상.
10	-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담는 콘텐츠 공방」
13	- 문헌정보학과 「그린나래 프로젝트」
16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형 건강교실」
18	- 가족복지학과 「Move with Daddy」
21	- 교육학과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25	2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여는 글 OPEN SENTENCE



2019년은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역 평생학습의 저변이 확장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든 누리는 평생학습, 단절된 영역(범주) 없이 어디든 넘나드는 평생학습이 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은상. 프로젝트는 오늘날 평생학습의 현실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찾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은상. 프로젝트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청년들에게 평생학습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역 평생학습의 사업 범주 안에 학교와 대학도 쉬이 드나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청년), 교수, 마을강사, 지역주민 등 대상과 영역을 아우르며 지역(은평구)과 대학(상명대학교)의 학습자원을 잇습니다.

은상. 프로젝트에서 <자신만만_은상>은 지역강사와 교육활동가들에게 대학전문연수를 통해 교수역량을 높일 기회를, <다빈치실험실_은상>은 대학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전공을 살리며 진로를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자신만만_은상>은 2018년에 이어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은평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는 마을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수법과 교수설계 전문연수로 진행했습니다.

2019년 <다빈치실험실_은상>은 상명대학교 5개 학과 전공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은평 지역사회에서 우리동네배움터, 늘배움학교(문해교실), 은평배움모아(지역평생 학습포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학습실천을 경험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은.상. 프로젝트의 영글어가는 모습을 이번 자료집 구석구석에서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청합니다.



지역-대학 연계 사업

은.상. 프로젝트

자신만만

은.상.(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자신만만 _ 은.상.(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기간 | 2019. 08. 27.(화) ~ 08. 30(금)

장소 | 은평구평생학습관

강사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이현우, 김효선 교수

대상 | 은평구 교육콘텐츠 참여 마을강사 40명

협력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주제 | 교수설계 기초 및 프로그램 개발

구분	강의명	강의내용	담당교수
1강	교수설계 기초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절차와 구성요소	이현우
2강	교육 프로그램 설계	학습목표 목적과 교육 프로그램 원리	이현우
3강	프로그램 개발의 이해와 실제	개발 방법 이해 및 학습이론 연계 프로그램	김효선
4강	나만의 프로그램 개발안 작성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및 피드백	김효선

“수업은 꼭 3분만!

수업주제는 자유롭지만, 팀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준비 시간은 딱 12분 드립니다.”

무슨 수업일까요?

바로 은평구평생학습관 마을강사 연수 ‘교수설계 기초’ 시간입니다.

교수설계... 문자로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수업은 우리가 하나하나 참여해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 조건’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Driscoll, 1994).”는 이론이 3분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1강 : 교수설계 기초



2강 : 교육 프로그램 설계





3강 : 프로그램 개발의 이해와 실제



4강 : 나만의 프로그램 개발안 작성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지난 2017년부터 ‘마을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교육학과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은평구 마을강사 전문성 함양 프로젝트인데요. 마을강사 분들은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 곳곳에서 늘 애써주시고 있죠. 이런 마을강사들의 강의컨텐츠를 더욱 매력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마을강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내가 잘하는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분, 컨텐츠 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분, 내 컨텐츠를 이론적·전문적으로 심화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상명대 교육학과 이현우, 김효선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마을강사 역량강화 수업의 특성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분들은 교육학 전문 이론을 듣고 이것을 개인별·모둠별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를 통해 실제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나만의 커리큘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마을강사분들은 ‘주입식 강의가 아닌 직접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단계별 실습 과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내 수업을 되돌아볼 수 시간’이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Interview



김효선 교수님

Q. 5년째 은평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인연을 맺고 있는 김효선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시민의 의지와 참여가 활발한 은평이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동력이 이 지역에 작용하는지, 은평은 각 마을에 많은 강사분이 있고 그들에게 뜻깊은 장소가 있거든요”

“마을강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강사가 배우고 싶고, 필요하다고 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마을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들의 매력적인 강의컨텐츠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마을강사 연수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하여 마을강사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대학 연계 사업

은.상. 프로젝트

다빈치실험실

은.상.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담은 콘텐츠 공방」

문헌정보학과

「그린나래 프로젝트」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형 건강교실」

가족복지학과

「Move with Daddy」

교육학과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2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담는 콘텐츠 공방」

한일문화콘텐츠학과는 2015년에 개설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학, 비교문화학, 문화콘텐츠학을 접목시킨 창조적 융합 학과로 동아시아 문화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2019년 은상. 프로젝트는 한일문화콘텐츠학과와 새롭게 함께합니다. 은평구에는 다양한 학습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가 늘 고민입니다. 학습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하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한일문화콘텐츠학과 ICT일본어 수업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데요. 수업에서 배운 콘텐츠 기획-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은평구민의 행복한 배움의 모습을 담은 창의적 콘텐츠 제작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사업 내용에 맞는 콘텐츠 기획회의를 통해 제작 콘티를 구성하고 촬영하고 음향, 자막, 효과를 넣어 특색이 가득한 편집을 합니다. 은평구 평생학습의 모습을 담은 가지각색의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기간 | 2019.05.~06.

장소 | 상명대학교,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구 내

진행 | 성윤아(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학과교수)

참여 | 한일문화콘텐츠학과 1~4학년 20명(ICT 일본어 수강생)

- 은평구 이해하기
-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준비
- 콘텐츠 제작 :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 은상프로젝트, 숨은고수교실, 마을누림프로젝트
- 콘텐츠 평가

은평구평생학습관_일본어 버전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_일본어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_중국어



은상프로젝트



숨은고수교실_일본어 버전



숨은고수교실_중국어 버전



마을누림 프로젝트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성윤아입니다.

지역민의 여가 활용과 배움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대학의 지역참여 활동 기회까지 마련해주신 은평구평생학습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란 배우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무엇보다 기쁩니다.



성윤아 교수님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와 집, 아르바이트, 학원 등 한정된 장소만을 다니며 지내던 학생들이 대학과 가까운 곳에 지역민들에게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생활복지'라는 것이 먼 곳이 아닌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점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SNS로 개인적 경험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성향의 팀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 명확한 목적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기획, 촬영, 편집, 영상물 완성 등의 제작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소통'을 배우고,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게 되었으며, 작은 힘이나마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나눔의 보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Q. 기억에 남는 학습자 혹은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모두 지역 평생학습관과 연계해 본인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 흥미로워했고 의욕적이었습니다. 수강 학생 중 지역주민 2명은 우리 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홍보에 의욕을 보이며 다른 학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했습니다. 또 어떤 팀은 평생 학습관에 흥미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명이 매우 기발하며 본인들도 직접 수강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앙금케이코 교수님이 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처럼 재능 기부를 꼭 실천해보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은.상. 프로젝트 참여가 처음인데다 운영 확정 시기가 수업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은평구민의 행복을 담은 콘텐츠 공방'의 현장 연계 활동 스케줄링이 어려워 작품을 기획하고 완성하는데 시간이 무척 촉박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본 수업 이외의 수업이나 활동, 과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자주 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원하는 것을 모두 콘텐츠에 담지 못해 학생과 교수자 모두 안타까웠습니다.

Q. 2020년에 연계하고 싶은 부분은요?

구민들의 학습 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 뿐 아니라 구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다문화의 이해' '어린이와 노인의 연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 사회 문제, 지역 현안, 지역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지역 문화콘텐츠와 학습'이란 주제는 학과의 특성과도 잘 어울려 학생들이 즐겁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nterview



학습코디 김하은 학생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학습코디라는 직책을 맡다보니,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홍보 영상을 찍고 자료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정표를 확인하거나 예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앞으로 다른 어떤 활동을 하든, 단체로 활동하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요청할 때의 프로세스나 지출 결의서 작성법 등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실 현재 은평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과 학교에만 신경을 쓰고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게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는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주축으로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달 시즌 이벤트를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조가 담당했던 '벽화 그리기'는 5월 가족의 달에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께서 함께 대화하며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을에 하는 독서의 달 행사 포스터를 보았는데 계절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쓴 점이 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포스터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나니 관심을 방문할 때도 한 번씩 읽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대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에서의 일을 학생 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은.상.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여러 프로그램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정보학과

「그린나래 프로젝트」

문헌정보학과는 지식·정보 제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정보 및 문헌을 처리하는 정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019년 은.상. 프로젝트는 문헌정보학과와 새롭게 함께합니다. 문헌정보학과 그린나래는 초등학생 대상 독서·독후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문헌을 전공한 학생들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기획·운영하는데요. 은평구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은평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린나래 학생들이 기획한 독서 특강과 이벤트로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언니오빠들이 가르쳐주니 더욱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기간 | 2019.07~12.

장소 | 은평구평생학습관

진행 | 문헌정보학과 동아리 그린나래 10명

참여 | 초등학교 3~4학년 16명

- 차시별 주제 독서 감상하고 독후 활동하기(총 13차시)

8/31(토) “Constellations”를 읽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고, 계절의 변화 체험

예시활동 : 별자리 팔찌 만들기,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와 나의 별자리 알아보기

1차시_거울 만들기



2차시_물 이해하기



3차시_프로펠러 만들기



4차시_간이카메라 만들기



Interview



박옥남 교수님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공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보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기억에 남는 학습자 혹은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영어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에 대한 반응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학습자 참여 모집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구하다 보니 체계적인 가이드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배워나가는 아이들 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서관의 요구사항이나 테마가 명확하면 좋을 듯합니다.

Q. 2020년에 연계하고 싶은 부분은요?

은평구평생학습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간 단위의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은상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 훨씬 용이할 듯합니다.

Interview

학습코디 김수연 학생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7월 저희 그린나래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때가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저희만의 힘으로 해내었다고 하기에는 담당 교수님과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관련 서류 작성까지. 때로는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온전히 저희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상명대학교와 가깝지만 은평구는 그린나래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가 본 곳이었습니다. 은.상. 프로젝트를 하며 은평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열정 가득한 곳임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10월 북페스티벌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그린나래를 관심 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봐주셨던 지역 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주 도서관을 드나들며 활기차게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이러한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은평구는 배움이 넘치는 열정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11월 <그린나래; 탐험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지만, 7, 8월에 진행했던 그린나래

실험실의 경우, 출석률이 저조해서 아쉬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회의를 통해, 많은 활동과 수업 내용을 준비해갔는데 준비했던 만큼 아이들에게 다 전달해주지 못하고 왔던 날은 저희끼리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은평구에서 그린나라가 첫 시작했던 달이라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여기까지 생각해보니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선, 그린나라를 믿고,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때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 감사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린나라가 지치지 않게 늘 응원해주시던 담당 교수님이신 박옥남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커다란 도전 앞에서, 직접 발로 뛰여 준 그린나라 팀원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없었더라면 그린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린나라의 뜻은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입니다. 저희의 작은 날갯짓이 도서관에 그린 듯이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났던 44명의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과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을 해주려 높게 들어주었던 손들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린나라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Interview

조장 신예지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봉사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교육 자료와 활동들을 준비할 수 있어 내용이 더 알차게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해준 아이들이 재밌다고 해줄 때 뿌듯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문헌정보학과에서는 3학년 커리큘럼에 '독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독후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므로써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사전에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공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은평구는 전공수업을 들을 때 몇 번이나 언급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구에 얼마나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은평구 내의 도서관들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진행 내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영어도서관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독서 레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시행착오는 항상 있다고는 하지만, 책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날이면 아이들의 참여도도 낮았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나갔지만 처음부터 잘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그린나라에 항상 신경 써주신 박옥남 교수님과 저희를 믿고 계속 도와주신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린나라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준 그린나라 팀원들도 모두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2019년은 굉장히 바쁜 한 해였지만, '은.상.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그린나라'를 통해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형 건강교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연구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지도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합리적인 영양섭취 그리고 신체활동과 관련된 부상 등을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2018년 은상.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습관에서 건강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의 열띤 반응에 부응하여 19년에도 함께합니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서는 매 학기 노인체육론 과목이 개설되며,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현상이 없었죠. 이론과 현장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은평구평생학습관은 늘배움학교로 문해교실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학습자들이 많아지는 반면,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건강 분야 특별활동이 없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서로의 아쉬운 부분을 은상. 프로젝트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형 건강교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명대학교 노인체육론 과목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은평구평생학습관 늘배움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노인체육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차시에 은평구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6차시에 걸쳐 건강교실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 4차시에 걸쳐 은평구평생학습관 4층 공연장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직접 운영합니다. 수업 마지막 차시에는 건강교실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간 | 2019.03.~06.

장소 | 상명대학교, 은평구평생학습관

진행 | 박진경(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참여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4학년 22명(노인체육론 수강생)

- 은평구 이해하기
-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이론 학습 & 전문가 자문
-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 프로그램 운영 : 늘배움학교 중학교 1~3학년 22명 대상
- 1차시_매트와 물병을 활용한 유연성 증진 운동 2차시_매트를 활용한 낙상방지 스트레칭
- 3차시_의자를 활용한 유산소 운동 4차시_매트와 의자를 활용한 하체 강화 운동
- 프로그램 평가



1주차_유연성 증진 운동



2주차_낙상방지 스트레칭



3주차_유산소 운동

4주차_하체 강화 운동

Interview



박진경 교수님

지역사회와 연계한 은.상.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운동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특히, 수업시간 마다 미리 오셔서 기다리시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습자 분들이 기억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며 계획하고 시행했던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경험이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인을 이해함과 더불어 은평구평생학습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운동 지도)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통해 향후 재능기부의 기회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다만, 4차시여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험하는 기간으로는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시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학과

「Move with Daddy」

가족복지학과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휴먼서비스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가족복지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018년, 최연실 교수님을 중심으로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 은.상. 프로젝트는 교수진 중심이 아닌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은평구에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개별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죠. 'Move with Daddy'는 가족복지학과 동아리 피움과 대학원생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론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은평구민에게 좋은 기회가 되구요. 가족복지학과는 현장 경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참여한 아빠와 아이는 4차시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간 | 2019.05.

장소 | 은평구평생학습관

진행 | 안연주, 최지선(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참여 | 가족복지학과 동아리 피움

- 아동기 부-자녀 관계의 가족발달단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신체적 만남을 통한 부-자녀 관계의 증진 활동
- 신체이완 미러링을 통한 공감능력 향상
- 몸과 언어의 대화법을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

1주차_Move with daddy



2주차_Move with daddy



3주차_Move with daddy



4주차_Move with daddy



Interview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 본 학과가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의 장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학문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고, 학과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배움을 실천 현장과 연계하여 전문역량을 증진할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실 교수님

Q. 기억에 남는 학습자 혹은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본 프로그램은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의 아버지와 자녀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가 신체적·언어적 소통을 경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을 개발해 가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양방향적인 소통의 경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더 와 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자녀들로부터 공감 받는 경험은 아버지들에게는 가족 안에서 새로운 관계 경험의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서로의 신체가 상호작용하도록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러링을 통한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자녀의 신체적 박자가 일치해 가고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에서 관계의 친밀감이 확장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을 실제와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진로 및 적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탐색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본 프로그램은 무용동작과 뇌과학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가족관계 프로그램과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관계 지향적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서 다소의 한계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가족체계의 역동을 활용하여 관계 증진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2020년에 연계하고 싶은 부분은요?

가족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면 그 지역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에 본 학과와 은평구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형태 안에서 가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계 속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학문적인 고민을 통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다양한 가족발달주기와 가족형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2020년을 기대해 봅니다.

Interview



안연주 강사



최지선 강사

Q. 강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인 무용동작과 뇌과학을 활용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뻐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함으로써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었고 약점을 보완하여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로 현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접 준비하여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보완할 점을 생각할 수 있었고 보다 완성도 높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다회차로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지역주민을 위한 은평구의 관심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은상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지역주민을 위한 풍요로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긍정적 이미지로 남아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이후 구성하게 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은상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은평구에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강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회차로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참여자들의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유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참여 유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현장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프로그램 역시 애써 구성하고도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었는데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작지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함께한 후배들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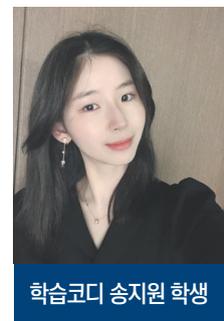
Interview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 회기에 걸친 가족 대상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향후 가족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직접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참여하며 은평구민과 소통하다 보니 은평구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더욱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자녀 외에도 한부모 아버지-어린 자녀 프로그램도 기획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학습코디 송지원 학생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어린 자녀 대상자 모집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참가자들이 회기 중간에 지각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교육학과는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인간의 다양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 교수와 학습에 관한 학문적 탐구를 기반으로 교육적 돌봄을 실천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상명대학교 교육학과는 은평구평생학습관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교육학과와 함께하는 은.상. 프로젝트도 2년차에 접어들었죠. 2019년에는 2학기로 나눠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학기에는 평생교육방법론, 2학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과 연계합니다. 우선, 1학기에는 은평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어떤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거죠.

2학기에는 은평 우리동네배움터에 조별로 배정이 되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수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배운 후 프로젝트로 적용해보는 겁니다. 우리동네배움터의 환경·운영진·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2020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평생교육방법론_지역평생교육방법을 넓혀라!

기간 | 2019.03.~06.

장소 | 상명대학교,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구 내

진행 | 김효선(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참여 | 교육학과 3학년 11명(평생교육방법론 수강생)

- 평생교육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평생교육 교수 방법의 적용 기법 탐색
- 은평구평생학습관의 다양한 교육 참관 : 은평 우리동네배움터(산책마을), 숨은고수교실(민화), 다빈치실험실(제로웨이스트), 늘배움학교(초등3학년), 은평복살롱(토론)
- 평생교육방법론 프로젝트 결과발표

숨은고수교실 민화 참관



제로웨이스트 수업 참관



늘배움학교 수업 참관



은평복살롱 수업 참관

Interview



김효선 교수님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2019년 봄,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실제 평생교육의 세계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수업은 평생교육론을 배운 학생들이 두 번째로 입문하는 수업입니다. 프로그램 설계 전 평생교육방법론에서 배운 성인학습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교수방법 및 이론들이 실제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확실히 참관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프로그램 설계 시 그 차이를 발견할 때 확실히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고, 지역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평생학습자를 이해하는 관점, 교수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교수자로서 뿌듯합니다.

Q. 기억에 남는 학습자 혹은 학생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문해수업에 참여관찰을 했던 학생들이 문해 학습자들과 교감하면서 학습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관찰 다녀온 팀들에게 항상 어떠했는가를 물어보는데, 제일 처음 '너무 재미있었어요'가 아닌 '너무 몽클했어요'라는 학생들의 말 속에 다른 팀에서 느끼지 못한 학습에 대한 간절함이 나이 들어 배가 뒹을 보고 느끼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본 프로젝트의 의도는 최소 2번의 관찰입니다. 1차 관찰은 제3자의 관점에서의 관찰, 2차 관찰은 심화 관찰로 가능하다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관찰만 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그에 대한 느낌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강사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Q. 2020년에 연계하고 싶은 부분은요?

2020년 다가오는 봄에는 좀 더 적극적 연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참여 학습자들에게 적어도 1회 정도는 참여관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체험하는 것과 3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의 차이 역시 중요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교육전문가로서 쉽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수업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막상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 수업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큰 앎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의 최종과제물을 관찰에 참여했던 강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적용해보거나 참고한 강사분들의 피드백을 학습자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과제가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강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학습코디 김정애 학생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평생교육의 개념과 여러 가지 평생교육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 중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양한 평생학습 이론들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학생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Q. 코디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학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학생들이 수업 중 하는 활동에 대해 조연을 주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방문 및 수업 참관 활동은 수업 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언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어려운데 활동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연락을 받고서 평생학습관 선생님들과 조장 학생 사이에서 조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은평구에 평생학습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학습자들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은.상.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생들과 협력해서 대학생들에게는 평생학습 현장 경험, 평생교육사에게는 평생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외부 학생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은평구평생학습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쌓여가는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상명대 학생들과 은평구평생학습관의 학습자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view

늘진지학교 조장 박지우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업이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론적 내용만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상. 프로젝트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이론과 연계하고 검토하며 교육방법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억에 남겠지요. 또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과정은 향후 교육전문가로서 학습자들의 요구와 환경을 분석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은평구평생학습관의 현직자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피드백해주시고 궁금한 것들에 답해주신 시간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학습자들의 요구와 환경에 맞는 교육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은 평생교육 및 교육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평생교육 현장을 관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방법에 대한 스킬 뿐 아니라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평생교육방법론 수업에서 저희 조는 늘배움학교를 참관하였는데, 이때 은평구 문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평구 지역 특성상 문해력이 부족한 실버세대의 비율이 높는데,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기받은 다양한 수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 학습관에서 예비 평생교육사 실습을 진행하고, 중장년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문해교육 진행과 수강신청 안내 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시간적 한계로 인해 한정적인 프로그램만을 참관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참관 가능했던 대부분의 수업은 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과 취미교양 수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학습동아리 활동 현장, 지역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프로그램, 시민사회의 의제를 다룬 프로그램 참관이 가능했으면 평생교육 방법뿐 아니라 평생교육이 주목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상명대학교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평생교육사 양성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을 통해 값진 기회와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사를 준비하는 학부생들에게 평생교육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은.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할 가치 있는 논의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평생교육에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nterview

기웃기웃 조장 김형석 학생

지난 봄, ‘평생교육 방법론’ 수업은 평생교육의 가치에 대해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교육론을 수강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있던 은평구에서 활발하게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진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라는 궁금증을 안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실제 수업에도 참관해보는 과정을 통해 그런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해 배우면서 교육이라는 것, 좁게 보아 수업이라는 것은 매우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처음 수업 참관을 했을 때, 매우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업을 지켜보고 수업 담당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반 교과 수업처럼 구조적으로 짜여있지는 않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에서 말하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고려한 수업이 어떠한 것인지, 성인교육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방법론의 시간은 저에게도 전환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김효선 교수님과 은평구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간 | 2019.09.~12.

장소 | 상명대학교,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진행 | 김효선(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참여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15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의 이해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 분석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실습 : 나무만들, 노리터, 나무가 모인 숲, 자파리공작소, 미인심리 상담카페
-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법 & 프로젝트 결과발표

In心조_미인심리카페 방문



뚝딱이조_자파리공작소 방문



프로그램 개발_DACUM 분석



프로그램 개발_요구분석

조별 Interview

In心 조장 고혜빈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진짜 운영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1, 2차시 운영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팀 간 프로그램 개발의지는 더욱 높았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동네배움터의 니즈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으며,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이고 좀 더 기획의도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 개발의 a to z를 직접 해보면서 평생교육기관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간담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부족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또 진행된다면 프로그램 개발 전 과정에 대한 현장 노하우나 조언 등이 추가된다면, 그것을 잘 반영하여 각 프로세스마다 주요 점을 두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각 니즈를 반영해서 학습자들의 배움을 이끌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 전문가분들의 조언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학부생으로 하여금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이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연계로 실제성을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교육학과생으로서 은평구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평생학습기관, 청소년기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은평구뿐만 아니라 각각 동네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카페 me:人 이 위치한 진관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은평구 동네별 특성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의 평생교육사 실습의 기회를 꼭 갖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은.상.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해주신 덕분에, 학부생 차원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와 연계해서 활동을 지원하시는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금과 더불어 저를 비롯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로 은평구평생학습관을 만나고 싶고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 관계자분들과 동네배움터 담당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별 Interview

나도숲 조장 황은서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보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과정과 이에 관련된 이론을 책상 앞에서만 들었다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본 수업의 내용을 떠올려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자와 학습관의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경험하며 실무에서도 차근차근 경험을 떠올려 가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은상 프로젝트와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이라는 수업명처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는 여러 이론과 방법들, 그리고 그 과정을 배우는 전공 과목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 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 여러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공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살게 되어, 은평구라는 동네는 새로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도숲이라는 동네배움터를 만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주변에 누가 살고,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은평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지를 파악하고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하여 전공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을 짧게나마 느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이 동네 배움터들을 비롯한 은평구 평생학습 현장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별 Interview

우동매동 조장 김해리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예산 및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서는 과제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좋지만 실제적인 환경과 제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인 성장은 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평구평생학습관 은.상. 프로젝트와 함께하며 실제 평생 교육 상황과 장소, 맥락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고 더욱 더 실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라는 환경이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전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배움터가 갖는 특유의 목적과 배경이 특별하기도 하고, 은평구 내 맥락 또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지금까지 수강했던 평생교육 혹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수업들 중에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구, 우리동네배움터 등 맥락분석 및 수요조사, 프로그램 내용 설계 및 구체적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는 일 등은 실제적인 평생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고민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 학습자들이 자신이 기대한 바를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과제를 통해 은평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은평구가 가지는 특별한 점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제를 했던 만큼,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로서 잘 구축된 은평구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한 학기동안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수강하며 은평우리동네배움터 노리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매력동이라는 뜻의 우리 우동매동 팀은 결과적으로 심신 스트레칭 : DSLR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동안 배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성찰노트, 나만의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를 구성하는 것,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대효과를 작성하는 것 등은 꽤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만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제는 통해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업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모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 설레이는 만큼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 어느 한 단계를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 때문에 학습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팀 모두 첫 단계였던 기관분석 및 수요조사부터 무척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쳐 총 115명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덕분에 수요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진행 시간 및 장소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할 때 인상 깊은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이 가끔은 나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면서도, 결국엔 평생교육이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스스로를 보며 적어도 이러한 노력이 누군가에겐 의미 깊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동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산안부터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보조자료, 강사에게 필요한 보조자료, 다과 등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비로소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모두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 개발자보다는 참여자로서 많이 접해보았는데 참여자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심한 부분을 고려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학습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동안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만큼 값진 경험이었다는 이 프로그램 개발을 우동매동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어 뿌듯하고, 이 활동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조별 Interview

똑딱이 조장 현동기 학생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현장과 호흡할 수 있었기에,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획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경험해봤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평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지난 학기에도 평생교육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은평구평생학습관에 방문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보다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과 동네배움터를 견학하면서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평생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평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은.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관하고 소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실제로 은평구평생학습관에 계신 선생님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자파리공작소를 더 방문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처음으로 해보면서 앞으로 삶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 어설피고 기관의 요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반영이 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과 요구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 은평구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된다면 갖춰야 할 태도, 지식 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 연계 사업
은.상. 프로젝트

발행처 은평구평생학습관

발행일 2019년 12월

편 집 은평구평생학습관

디자인 (주)우정피앤피

03404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7

전화 02-351-3673

<https://edu.eunpyeong.go.kr>